

### 한형조 무문관 탐방

22 문문의 종소리

\*운문이 말했다. "세계는 이토록 광활한데 어찌서 종소리가 들리면 가사를 제하는가?"

\*나 해가 말한다. "무릇 선(禪)을 참구하고 도(道)를 배우는 사람은 소리를 따르고 색깔을 좇는 것을 깊이 삼가야 한다. 소리를 듣고 도를 깨치고, 색깔을 보고 마음을 밝히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소리를 울리라고 색깔을 덮어 알마다 밝고, 점점 묘한 경지를 연다. 그렇더라도 어디 말해볼라. 이때 소리가 귀가로 오는가. 아니면 귀가 소리쪽으로 가는가. 소리와 고요를 모두 잊은 자리에서 그는 무어라고 말할 것인가. 귀의 총명함을 믿으면 실패할 것이고, 눈으로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화연해질 것이다."



그림 : 이준석

제국이 일어났다 사라졌지만 이 가난과 청빈의 공동체만큼 오래 살아남은 조직은 다시 없다.

승가 역시 조직인 만큼 루틴에 매몰되거나 세속화될 위험은 언제나 상존했다. 새벽에 기상하여, 아침 예불과 공양, 낮의 휴식과 율령, 그리고 법문과 참구,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일과가 계속된다. 무슨 일이든 반복되면 쉬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 본래적 목표를 잊어버리기 쉽다. 운문은 지금 바로 그 태와 안일, 그리고 자기기만을 다시금 깨우쳐 주고 있다. 종소리가 울리면 지반 덕산 노인처럼 밥그릇을 들고 식당으로 내려간다. 혹은 그 종소리에 대응들은 법당으로 내려간다. 노스님의 일장연설이나 수수께끼문답, 혹은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를 일상적 행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논변 나귀처럼 소리와 색깔의 일상적 습관에 젖어 있다. 우리의 의식을 구성하는 것은 육근(六根)과 육진(六塵)이다. 소리를 듣고, 색깔을 구분하며, 그리하여 의식을 형성한다. 의식은 일정한 상황에 대해 효율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도구이다. 바로 여기에 명암이 있다. 불교는 일상적 의식의 기제가 근원적 자아에 대한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다고 증거한다. 의식의 파장은 그 속성상 대상

\*송하여 가로되, \*터득하면 내집안 일이고, \*터득하지 못하면 남의 일이다. \*터득하지 못하면 내집안 일이고, \*터득하면 남의 일이다.

鐘聲七條:  
雲門曰, 世界無量廣闊, 因趨向鐘聲與鼓七條. 無門曰, 大凡參禪學道, 切忌隨聲逐色. 縱使聞鐘聞鼓, 見色明心, 也是尋常. 殊不知, 衲僧家騎聲逐色, 頭頭上明, 著著上妙. 然雖如是, 且道, 聲來耳畔, 耳往聲邊, 直喚作雙雙忘, 到此如何話會. 若將耳聽聲, 眼聽聲, 聞聲方始親. 鐘曰, 會則事

## “소리에 갇힌 칠통을 깨라”

### 고착 관념 걷어내야 무한 법계 열려

同一家, 不會萬別千差. 不會事同一家, 會則萬別千差.

동물은 행동을 본능에 의존한다. 감남갔던 제비는 봄이 되어 어느집 처마로 갈는 지를 알고 있고, 태평양의 연어는 산란을 위해 수천킬로를 헤엄쳐 오십천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각각의 행동의 방향과 반응의 기제를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편리한 장치에 기별 수 없다. 본능보다 이성애 의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각자가 기회하고 선택할 수는 없다.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모를 막고 정신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와 행동의 틀이 미리 주어져야 한다. 손가락을 쥐는 법에서 인사하는 법까지 교화와 통제의 틀은 선택 이전에 존재한다. 이를 작게는 관습 혹은 문화로, 거창하게는 전통 혹은 문명으로 부른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주어진 물질적 정신적 환경에 걸맞는 교화의 최적 코드를 발견하고 그것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불교는 이를 세속의 원리(俗諦)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불교는 초기부터 구원(眞諦)의 이념에 걸맞는 새로운 공동체를 기획했다. 승가(僧伽)는 불교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가지 기둥(三寶)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상 수많은

아주 좁게 한정하며 그리하여 의식의 근원(如來藏)을 그 전체에 있어 발현해주시 못하기 때문이다. 운문은 말한다. “세계가 이렇게 광활한데 어찌 종소리만 울리면 웃을 제하는가.” 광활한 세계란 일심(一心) 혹은 진여(眞如)가 연출하는 대자유의 무한법계를 가리킨다. 그곳은 지속적인 공안참구를 통해 인식의 고착된 프리즘을 걷어내야만 기약할 수 있다.

일찍이 소리나 색깔에 갇힌 칠통을 타파하여 그 너머를 본 사람들이 있었다. 향염은 무심코 던진 자갈이 대나무에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또 어떤 선사는 길가에 핀 흐드러진 복사꽃을 보고 귀를 열었다. “지불의 표현을 빌면 땅으로 하여 넘어진 자는 땅을 의지해 일어난다.” 소리와 빛 또한 마찬가지이다. 도구적 인식적 반연의 그물은 선의 황금공간을 여는 열쇠일 수 있다. 무문은 그러나 그건 단지 열쇠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빗장을 따고 들어간 실제(眞際)의 광경을 보여준다. 소리와 빛의 구분이 없고, 나와 남의 구분이 없으며, 같고 다름의 표지가 탈락한 그 무애의 걸림없는 세계를.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소리와 빛은 세 가지 의미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인식적 차원이고, 둘은 방편적 차원이며, 셋은 구경(究竟)적 차원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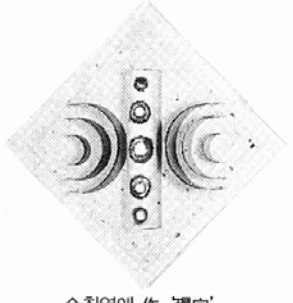
인류 역사에 맨 처음 출현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경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에도 많은 부처님들이 존재 했었다고 말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일곱 부처님들이 세상에 계셨다고 하는데 비바시불을 비롯해서 시가불, 비사부불, 구류존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이 대표적이다. 가장 먼저 오셨다는 비바시불은 11집전에 왕족으로서 태어나 파탈리수 아래서

### 칠불통계계

성불하고는 3회의 설법만으로 34만 명의 중생을 교화 하였다고 한다. 다음의 시기불은 과거 정엄집전에 역시 왕족으로 태어나 분다리수 아래서 성도를 하고는 3회의 설법을 하여 1회에 10만, 2회에 8만, 3회에 7만명을 제도 하였다고 한다. 세번째 비사부불은 31집전에 마한가지로 왕족으로 태어나 사리수 아래서 도를 이루었는데 1회에 7만명, 2회에 6만 명에게 설법하여 교화 하였다고 한다. 네번째 구류존부처님 일곱번째 석가모니불은 현전에 출현한 부처님들로 구류존불은 바라문의 종족으로 출생하여 사리사수 아래서 도를 깨닫고 1회의 설법으로 4만의 대중을 교화 했으며 구나함모니불도 바라문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오잠바라수 아래서 성불한 다음 1회의 설법으로 3만의 중생을 교화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가섭불 역시 바라문의 가정에서 태어나 니그로와 나무 아래서 정

## 法數로 배우는 불교

<31>



◇최영애 작 環向

### “악행 끊고 선행하며 마음을 맑게하라” 석가모니등 초기 일곱 부처님 가르침

각을 이루고 한차례의 설법으로 2만 명의 제자를 제도하였다고 하며 알려진 바와 같이 석가모니불은 가비라시의 왕족으로 태어나 보리수 아래서 성불했고 45년간 설법 끝에 수많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곱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해서 중생들에게 설법하신 주된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거의 일곱 부처님들이 이루고자 했던 불교의 정의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칠불통계계(七佛通戒戒)라고 하는데 한 부처님 뿐

곳이 집이나 절이 아니라 큰 소나무 가지위에서 새처럼 지냈다. 하루는 이 도립선사에게 어떤 거사가 찾아왔다. 유명한 백거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유·불·선에 능통할 뿐더러 당대의 시인으로도 추앙받고 있었고 지금의 군수직을 가진 벼슬아치였다.

백거이는 소나무꼭대기에 앉아있는 선사를 보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도립선사는 오히려 장작불이 만나 서로 성한것처럼 당신의 타는 마음에 위험하다고 쫓았다. 백거이는 이번에는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라고 물었다. 이에 선사는 대의로 칠불통계계를 읊었다. “악한 짓 하지 말고 착한 짓만 하면서 마음을 맑히면 그게 불교지”. 백거이는 실존을 지었다. “아니 스님 그것은 세살짜리 아이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 물음에 “세살짜리도 맑은 할 줄 있으나 팔십먹은 늙은이도 행사하기 어렵다네”라고 선사가 답했다. 백거이는 그 자리에서 절을 했다. 불은 이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에 있는 것임을 알려주는 일화를 지금도 불문에서는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을 터이다. 악을 그치지도 어렵고 선을 행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것은 자기의 마음을 깨달아 청정시키는 일이다.

작은 악이라도 범하지 말고 작은 선이라도 실천하면서 마음을 자꾸 맑히려는 공부를 지속하는 것이 일곱 부처님의 뜻에 부합된 불자의 생활인 것이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 불교와 수학

25 無와 0의 사이

김용운

“철학적인 범재가 짙은 수단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자. 수의 기능만을 다루었던 수학자들도 할 수밖에 없었고, 예로부터 수학과 철학자는 이 물음에 온갖 입장에서 답을 제시해 왔다.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존재 양식이라고 믿는 피타고라스의 ‘모든 것은 수라는 것이 있다. 그는 수를 열주처럼 0 0 0 ... 0와 같이 직선 상에 배열된 원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수열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B.라셀은 “인간이 두 개의 틀과 두 마리의 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1대1 관계가 성립되고 2를 추상해 낼 때 비로소 문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극적인 표현을 했다. 이 같이 수를 인식하게 되자 수를 가운데 1, 2, 3 ...과 같은 물건의 개수를 나타내는 수가 맨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없는 것을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나타내는 0은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수는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어디까지나 존재하는 대상이 있을 때 한해서였고 ‘없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명제에 도달하기까지는 더 많은 철학적인 사유가 필요했다. 수학사에서 처음으로 수에 0을 편입시킨 민족은 ‘무’의 존재를 적극 내세운 불교 철학을 가진 인도였다. 일단 영을 수 세계에 받아들이고 보니 수학자들은 모든 수는 0으로부터 하나



### ‘0’은 數의 근원... “없는 것이 존재한다” 유마의 침묵 문답 초월한 ‘無’와 상통

의 법칙(연기의 理)에 따라 차례로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되었고 수의 근원이 0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6세기초 중국 남조 양(梁)의 무제는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부대사를 공(宮)으로 불러 “수많은 불교 경전이 있는데, 도대체 그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부대사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답답해진 무제는 “빨리 말씀을 하시오”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 있을 뿐이었다. 이때 무제를 가까이 모시던 보지화상이 방

바도 없고, 모든 문답을 초월하는 것, 그것이 곧 불어(不二)의 법문, 절대 세계로의 임문이라고 생각된다.”

마침내 유마거사가 절대불이의 법문을 설명할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유마거사는 아무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있었다. 이것이 <유마경>의 진가를 나타낸 장면이다. 유마의 침묵의 여파(如雷, 비라과 같다)로 표현되는 대목이다.

침묵, 말이 없다는 사실은 모든 표현을 초월하는 최고의 경지, 절대의 세계,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언어도단의 세계이다. 말이 나올 때는 이미 존재의 일부만을 잘라 내어 전체를 표현하는 것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는 수의 세계로 돌아간다. 수를 가시화 하는 방법의 하나로 수직선이 있다. 0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무한히 뻗은 직선 상에 일정 거리를 두고  $\pm 1 \pm 2 \pm 3 \dots$  이 뻗어 있다. 이를 모두가 하나의 법칙(理)에 따라 상호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굳이 이들 수를 표시하려면 존재를 설명해야 한다. 수는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의 대오(大悟)는 마음의 세계기에 절대의 경지에 비약할 때 남을 의식하지 않는 언어도단이 설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 명절을 기하여 특별봉사 기간을 만들어 할인 판매합니다 ◆

『국내 최초 고급비단천 10색칼라 완제품』

## 석가 세존 일대기 팔상록 부모은중경(금강경) 8폭 병풍 보급

▼ (전면) 부모은중경

귀의 삼보하움고

본 성불봉사 포교원은 2,000만 불교도의 불심정진과 바른신행생활을 위하여 우주의 근본이며 사생의 자부인 석가세존(부처님)의 장엄하신 위엄과 구도를 널리 깨닫게 하고자 -念의 포교 차원에서 전통문화와 공예품을 발굴하여 작가의 독특한 예술적 정화를 통해 하나하나 불교혼을 불어 넣어 실재감 있게 살아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각 사찰은 물론 가정과 사무실에 -品씩 소장하시어 항상 직접 보고 깨달음으로 더욱 크신 佛心 경지를 달하게 할 것이며 특히 佛心을 모르는 수많은 중생들까지 佛心을 심어 하시는 일이 부처님의 가피덕력으로 모두 이루시고 佛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충분하시길 합장 발원하옵니다.

특별 할인 가격 (신용카드 18개월 할부가능)

- 팔 상 록 : 360,000
- 부모은중경 : 380,000

성불 봉사 포교원

- 문의처 : 02)831-2848-9 / 02)831-7075
- 수신자부담 전화 : 080)284-2848
- 팩 스 : 02)831-2849

▲ (후면) 반야심경

● 작품규격 : 5.5尺 × 폭 12尺 ● 표구재질 : 고급실크지 수입스기목

▲ (후면) 금강경